

온나我

“나를 걸으며 나를 돌보다.”

“나는 누구인가?”라는 질문은
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화두이며
소크라테스는 “너 자신을 알라!”라는 말로
우리 각자의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인지를 화두로 던진다.
예수 그리스도는 “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!”라고 하신다.
나를 알아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
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
서로를 사랑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.
이제 조금씩 나를 걷고 나를 돌보며 나를 만나는 시간을 통해
‘온전(穩全)한 나’를 찾아 ‘완전(完全)한 나’로 가기 위한
성장과 성숙됨의 자리에 초대합니다.

프로그램

구분	첫째날
	도착 및 접수
오후	- 지금 이 순간을 - 걷다 - 보다 - 만나다
저녁	- 뒷풀이(Feedback) - 오늘 돌본 나를 말하고, 만난 나를 나누기

· 1일 일정의 온-나는 수시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참 나를 찾도록 돕습니다.

